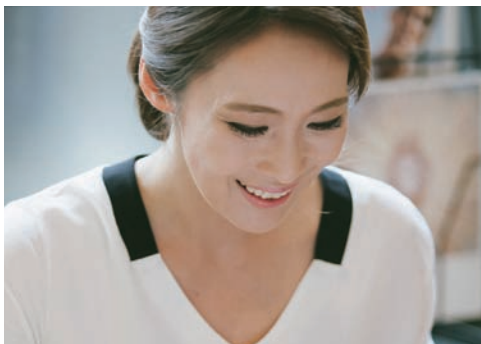


배구는 '세 번의 마무리'다.
리시브, 토스, 공격으로 끝맺는다. 그게 기본이다.
박희상 배구 해설위원



선수 시절 세터였다. 공을 토스하듯
시청자들 귀에 쪽 드는 해설을 하고 싶다.
이숙자 배구 해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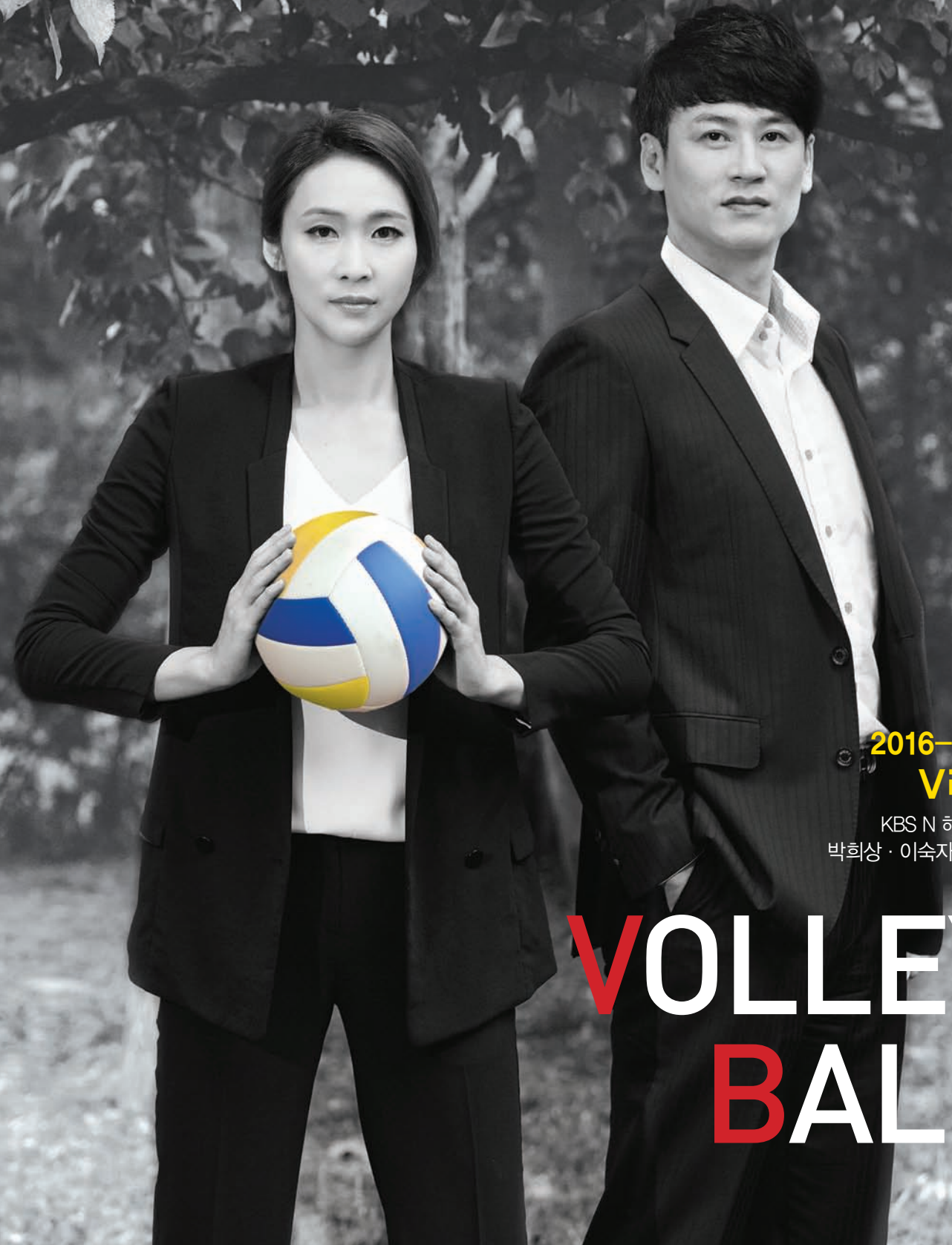
KBS N

magazine

OCTOBER. 2016

VOL.07

KBS N



2016-2017
V리그

KBS N 해설위원
박희상 · 이숙자 인터뷰

VOLLEY BALL



2016-2017 프로배구



KBSN SPORTS와
함께하세요!

CONTENTS

OCTOBER. 2016 VOL.07

04



10



16



N special

2016-2017 V리그

- 04 배구의 樂
- 06 박희상, 이숙자 해설위원의 V리그 전망
- 09 배구를 보는 눈
- 10 N program
대한민국 KBO리그의 시작과 끝
<아이러브 베이스볼>
- 12 N guest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와 함께한 <알럽베>
- 14 Hot match
송진우 vs 장성호 해설위원의 투타 대결

- 16 On air
엔딩으로 만나는 보검매직
- 17 Review
청춘로맨스 사극의 신성 <구르미 그린 달빛>
- 18 N campaign
여러분의 웃음을 함께 나눠요
- 20 Fair
광주 에이스 페어 KBS N 부스 참관기
- 22 N news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후원
- 24 Notice
'히트다 치킨!' 독자 소감 선정자 발표

KBS N Magazine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6.10.4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297
기획 홍보팀 이용주, 최고은, 이지희
제작·디자인 디앤씨(02-792-5444)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BS N 홍보팀 pr@kbsn.co.kr

배구의 樂

10월 15일, 드디어 2016-2017 시즌
V리그가 개막한다.

협(協), 초(超), 음(音). 배구의
삼락(三樂)을 즐길 시간이 왔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전.

9x9m의 정사각형 코트 안에 여섯 선수가 웅기증기 서서
상대 진영으로 공을 날려 보낼 공리를 한다.

내 손에 공이 닿는 순간은 단 한 번.

혼자 서브를 받아 공을 올리고 스파이크를 때리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한 명의 세터, 한 명의 리베로,

네 명의 공격수가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

배구를 협력의 스포츠라 부르는 이유다.



超

누가 뭐래도 공격의 꽃은 스파이크다. 슛구치듯 뛰어올라
네트 아래로 힘차게 공을 내리꽂는다.

탕 소리에 막힌 체중이 싹 가신다.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무게가, 중력을 거스르고 튀어 오른 공처럼 가벼워진다.
배구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다. 나 자신을 욕죄고 가로막는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오랜 열망을 눈앞에 보여준다.

배구는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이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또렷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손목 스냅으로 빠르게 후려치는 속공은 경쾌하다. 위에서
강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는 묵직한 중저음이다.
코트 바닥에 닿는 공의 높이와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난다. 눈을 감아도 배구가 보인다.

協



音



이젠 V 리그다

박희상, 이숙자 해설위원

두 해설위원이 V리그를 전망했다.
트라이아웃 제도로 뽑은 외국인 선수, FA로 이적한 국내 선수,
확 바뀐 코치진 등 이야깃거리가 많았다.



KOVA컵 대회를 앞두고 박희상, 이숙자 해설위원을 만났다. 10월 15일 개막하는 V리그를 전망하기에는 시기상 이른 감이 있었다. 이숙자 해설위원은 브라질에서 돌아와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각 팀의 연습경기를 참관하고 감독,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리우에 간 배구 해설위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바빴을 거다. 여자배구 팀 중계하고, 비치발리볼 중계도 했으니까. 그래도 육아보단 덜 힘들더라.(웃음)”

올해 KOVA컵은 ‘프리시즌’으로 봐도 무방했다. 보통 7월에 열려 국내 선수들로 경기를 치렀다면, 올해는 리우 올림픽으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V리그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됐다. “외국인 선수들도 참여하는 만큼 V리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대회다. 프로야구 시범경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KOVA컵을 보면 윤곽이 나올 거다.” 박희상 해설위원의 말이다.

올해 트라이아웃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희상 여자배구에 이어 남자 외국인 선수의 선발도 FA(자유계약)에서 트라이아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제 레오나 시몬 같은 고액 연봉 선수는 볼 수 없다. 30만 달러의 동일한 금액을 받는 선수들이 각 팀에 들어왔다. 용병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는 30% 정도로 본다. 7명 중에서는 대한항공의 미차 가스파리니가 가장 눈에 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었고, V리그도 경험했다. 현대캐피탈의 톤 벤 랭크벨트도 눈여겨볼 선수다. 과연 지난 시즌 오레올만큼 해낼까? 최태웅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에 녹아들어야 한다.

이숙자 여자배구에서 외국인 공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50%는 되는 것 같다. 에밀리 하통(현대건설)과 레슬리 시크라(한국도로공사)는 재계약에 성공했

다. 에밀리 하통은 수비도 잘하고 워낙 성실한 선수다. 레슬리 시크라는 공격력 하나만큼은 최고다. 흥국생명의 타비 러브는 196의 최장신으로, 타점은 높지만 민첩성과 세밀함은 떨어진다는 평이다. KGC인삼공사는 걱정이 많다. 사만다 미들본이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알레이나 버그스마를 새로 영입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센터 한수지를 레프트, 라이트로 바꿔 연습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6-2017 시즌 V리그를 어떻게 예상하나?

박희상 트라이아웃이 처음 도입된 해라 예측이 어렵다. 지난 시즌에는 OK저축은행의 시몬, 현대캐피탈의 오레올, 대한항공의 산체스 같은 외국인 선수를 둔 4강팀이 딱

눈에 들어왔다. 이젠 그렇지 않다. 용병 수준이 평준화되면서 국내 선수들의 기존 전력이 탄탄한 팀, 안정된 팀워크를 유지하는 팀이 승점을 많이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 1, 2라운드(팀당 12경기씩)를 치르면 3강의 윤곽이 잡힌다. 준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4위 자리를 놓고 남은 팀들이 접전을 벌일 것 같다.

이숙자 여자배구도 선수 이동이 많았다. 이 선수들이 새 팀에 녹아들어 어떤 플레이를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주목할 팀은 한국도로공사다. 코칭스태프가 다 바뀌었다. 지난 시즌 감독이 중간에 나가고 팀이 어수선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실력 발휘를 못한 점이 있다. GS칼텍스의 배유나를 FA로 영입하면서 좋은 변화가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윤이 따랐다. 3라운드 이후에 흔들렸지만, 경쟁 팀인 흥국생명의 테일러 선수가 발바닥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한 덕을 봤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IBK기업은행의 리즈 맥마흔이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윤이 따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력상 우승 후보를 꼽는다면?

박희상 ❶ OK저축은행 ❷ 대한항공 ❸ 현대캐피탈 ❹ 삼성화재 순으로 본다. OK저축은행은 트레이드로 전력을 보강했다. 조국기가 입대하면서 정성현 혼자 리베로를 맡게 됐는데, 이강주를 영입하면서 수비를 보강했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기본 전력이 워낙 탄탄한 팀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박기원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네덜란드 출신의 귀도 피르첸 코치를 영입했다. 광승석, 김학민, 김철홍 같은 FA 선수와 재계약에 성공했고, 미차 가스파리니라는 트라이아웃 최대어를 잡았다. 삼성화재의 경우에 선수 이동으로 변화가 많았지만, 적절한 트레이드로 약점을 보강했다.

이숙자 ❶ IBK기업은행 ❷ 현대건설 ❸ 한국도로공사 순으로 본다. 여러 가지로 힘든 KGC인삼공사를 뺀 나머지 5팀의 혼전이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은 김사니(세터)와 남지연(리베로)이 안정적이다. 박정아, 김희진 같은 공격수들도 잘해주고 있다. 외국인 선수 메디슨 킹턴은 185로 키가 크진 않지만, 파워와 배구 센스가 좋다는 평이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저력이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새로운 변화로 약진이 기대된다.



KBS N Sports의 배구 해설위원으로서 어떤 점을 중시하는가?

박희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로 시청자가 경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일이다. 캐스터와의 호흡도 중요하다. 앞에서 끄는 사람을 뒤에서 잘 받쳐줘야 한다.

이숙자 누가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해설을 하고 싶다. 물론 여기에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축축 늘 어지는 경기도 지루하지 않게 해설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다. 결국 어떻게 다르게 전달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점을 늘 고민한다.

KBS N 캐스터들과의 호흡은 어떤가?

박희상 이기호 캐스터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뛰어나고, 신승준 캐스터는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짚어준다. 강준형 캐스터는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정말 좋다. 이호근 캐스터는 학교 후배라 그냥 편하다. <우리동네 예체능> 배구 편에서도 함께했다. 왕년의 '배구도사'로 출연해 경기를 뛰었는데, 무릎이 아파 한 달을 고생했다.(웃음)

이숙자 신승준 캐스터는 늘 편안하다. 교회 오빠 스타일인데.(웃음) 정작 본인은 그런 말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반전 매력이 있는 교회 오빠라고 해두자. 강준형 캐스터는 사전조사 역량이 뛰어나다. 해설을 하면서 짹짹 놀랄 때가 있다. 거의 오덕 수준이다. 이호근 캐스터는 말주변이 좋고 재치가 있다. 얼굴이 너무 작아 상대적으로 내 얼굴이 크게 나오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배구는 원지 한마디로 말해달라

박희상 내게 배구는 '세 번의 마무리'다. 리시브, 토스, 공격 세 번으로 끝맺는다. 그것이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숙자 내게 배구는 '당연한 삶 or 운명'이다. 처음 배구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네 번째 줄에 섰다. 그래서 4번을 달았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배구를 하셨는데, 등번호가 4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무슨 운명 같다.



배구를 보는 눈

국제배구연맹이 인정했다. 배구 중계는 역시 KBS N Sports라고. 이제 V리그의 생생한 영상을 안방에서 즐길 일만 남았다.

청주에서 열린 KOVO컵 대회는 전초전이였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자유계약과 트레이드 등으로 팀을 옮긴 선수들이 새 팀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가늠하는 좋은 기회였다. 또 신임 감독들이 어떤 리더십으로 팀을 변화시켰는지, 앞으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제 본 게임을 앞두고 있다. 10월 15일부터 2016-2017 시즌 V리그가 개막한다. 향후 다섯 시즌 동안 200억원 규모의 중계권 계약을 맺은 KBS N의 걸음도 바빠졌다. KBS N은 프로배구 주관방송사로서 지난 10여 년간 프로배구의 발전을 위해 뛰어난 중계 인력과 첨단장비들을 투입해왔다. 1초에 2,600장을 찍을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 네트 위에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핀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박진감 넘치는 순간을 잡아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배구의 역동성을 카메라에 담아내다

지난 시즌 KBS N Sports는 국제배구연맹(FTVB) 사무총장으로부터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받았다. 2015년 11월 5일에 펼쳐진 남자

부 V리그 <한국전력 vs 대한항공> 경기의 명장면을 두고 KBS N 중계팀을 극찬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최부식(리베로) 선수가 대기라인 끝까지 쫓아가 발로 수비하는 디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잡아낸 영상은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배구는 빠르고 역동적이다. 블로커의 손끝에 닿는 공, 네트의 미묘한 떨림, 라인을 스치듯 튕겨 오르는 공... 슬로비디오로 잡아낸 정밀한 영상은 실감의 깊이를 더했고, 배구를 보는 시야를 넓혔다. 팽팽한 승부에서는 단 한 점으로 경기의 흐름이 바뀐다. 이럴 때 오심은 치명적이다. 프로배구가 2007-2008 시즌에 비디오 판독 판정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KBS N Sports의 카메라워크는 빛이 났다.

배구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시즌 V리그의 시청률은 남자부, 여자부 모두 시청률 1%를 넘나들며 겨울 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올해 남자배구는 월드리그에서 선전했고, 여자배구는 리우 올림픽에서 멋진 승부를 선보였다. 이젠 2016-2017 V리그다. 남자부 7개 팀, 여자부 6개 팀이 6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그 곁에 KBS N Sports가 함께한다.

대한민국 KBO리그의 시작과 끝 아이러브 베이스볼

<알럽베>는 라이브로 간다.
하루하루 생방을 위해 40여 명의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
KBO리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알럽베> 현장을 찾았다.



I ♥ 베이스볼

사실상 두산, NC, 넥센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가운데 4, 5위 자리를 놓고 중위권 팀들의 경쟁이 뜨겁다. <아이러브 베이스볼>(이하 <알럽베>)은 오늘도 어김없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조명하고, 결정적인 승부처를 살뜰히 짚어준다. <알럽베>는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매거진이다. 8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관록', 정확한 데이터와 영상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 '야구여신'으로 불리는 여자 아나운서 등 프로야구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일은 늘 어렵다. 부단한 노력이 뒤따른다.

바쁘다 바빠, 라이브

<웰컴투 알럽베>로 당일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시작한다. 각 팀 출전 선수들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중계 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준다. 사전 인터뷰와 프리뷰는 <알럽베> 작가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행하는 가운데, 현장 중계차와 보조정실을 연결해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한다. 연출팀의 발걸음도 바쁘다. 중계 경기 전에는 경기에 대한 프롤로그를 제작하고, 경기 진행 중에는 실시간으로 각 구장에서 들어오는 클린 화면을 보며 각 경기별 하이라이트를 제작한다. 중계가 끝난 후에는 각 구장에서 클린 영상을 받아 편집을 거친 후 LSM(Live Slow Motion)에 클립을 저장한다. 이 화면은 경기 하이라이트, 경기 분석, 미스 & 나이스, 최고의 원샷 등의 코너에 활용된다. 시청자의 신청곡을 담은 영상도 미리 준비해서 송출 준비를 마쳐야 한다.

팀워크, 오직 팀워크

2명의 MC(화수목은 오효주, 금토일은 이향 아나운서), 5인의 해설위원 외에도 많은 스태프들이 생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작가, 기술감독, 영상감독, CG 감독 등 스태프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 <알럽베> 생방을 위해 40여 명의 스태프가 함께하고 있다. 강익권 PD의 말을 들어보자.

"PD는 전체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PD가 주형틀을 만든다면, 작가는 그 안에 쇳물을 부어넣는, 즉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한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PD와 작가의 의도를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본인의 코멘트와 생각을 더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는 디자이너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해설위원은 본인의 생각과 분석을 머무려 작가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대본을 완성해간다. 해설위원의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 카메라, CG 팀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낸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원칙, 한결같은

<알럽베>는 비인기 팀의 경기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모든 경기에 고른 시간을 할애해 왜곡과 편견 없이 경기 내용을 전한다. 또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하이라이트가 방영되는 동안 배경음악을 넣지 않는다. 현장의 소리와 캐스터의 멘트만으로 이루어진 담백한 구성으로 승부한다. 또 올해에는 본격 프로야구 이슈토크인 '합의판정' 코너(주말 방송)를 신설해 승부 조작, 삼성왕조의 몰락, 탈LG 현상 등 민감한 사안을 속 시원히 정리해주고 있다.

<알럽베>는 원칙을 지키되,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프로야구와 함께 성장해가는 매거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지막 멘트는 한결같다. "대한민국 KBO리그의 시작과 끝은 <아이러브 베이스볼>." 무슨 일이든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2016년 가을야구도 마지막 승부를 향해 가고 있다. 올 포스트 시즌도 <알럽베>가 함께한다.

I ♥ 베이스볼

with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일일 해설위원으로 <알럽베>에 출연했다. 스스로 청해서 이뤄진 일이었다. 그의 야구 사랑이 '라이브'로 전파를 탔다.

깜짝 출연이었다. 9월 27일 <아이러브 베이스볼> 생방송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일일 해설위원으로 등장했다. MC를 맡은 오효주 아나운서는 “평소 야구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고 한국 야구에 애정이 남다른 분”이라는 말로 리퍼트 대사를 소개했다. 사실 그랬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야구 직관을 다니는 두산의 열혈 팬이었다.

이날 방송은 한국 야구를 좋아하는 리퍼트 대사가 <알럽베> 팬으로 출연을 자청하면서 이뤄졌다. 그는 한국 야구에 빠진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야구와 친해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포지션은 3루였다. 가끔 1루도 보고, 드물게 포수를 봤다. 포수는 정말 힘들더라.(웃음) 고등학생 때 LA 다저스에서 뛰는 박찬호 선수를 보고 KBO리그를 알게 됐다. 야구에 늘 관심이 많았다. 한국에 대사로 와서 ‘직관’을 다녔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한국 야구의 매력에 빠졌다.”

요즘은 LG가 뜨겁다

이날 방송에는 안치용, 대니얼 김 해설위원이 함께 출연했다. 리퍼트 대사는 대니얼 김의 통역 없이도 웬만한 질문을 바로 알아들었다. 영어 대신 한국말로 답할 때가 많았고, kt의 이대형 선수 이름을 덜 정도로 한국 야구에 해박했다. 그는 전반적인 리그의 수준이 높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한 팀이 4강에 합류해서 펼치는 가을야구가 아주 흥미롭다고 평했다. 또 올해 포스트시즌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두산은 내가 마음으로 응원하는 팀이다. 2연패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2, 3위인 NC와 넥센도 저력이 있는 팀이다. 결과를 단언하기가 어렵다. 지난 시즌에 두산이 3위로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다. 또 요즘은 LG의 야구가 뜨겁다. 현재로서는 LG가 4위, 기아가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설 것 같다. 올해도 흥미로운 포스트시즌이 될 거다. 기대가 크다.”

누구나 블론세이브를 할 수 있다

이날은 전국에서 네 경기가 열렸다. LG의 허프, KIA 양현종의 선발 맞대결보다 화제가 된 건 대전에서 열린 두산과 한화전이였다. 한 편의 대역전 드라마였다. 니퍼트의 우승을 코앞에 둔 두산이 9회 말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4점을 헌납하면서 8대 9로 역전패를 당했다. 니퍼트는 한 시즌 외국인 투수 최다승(22승)을 날렸고, 팀 또한 역대 한 시즌 최다승(91승) 기록을 훔날로 미뤄야 했다.

리퍼트 대사는 패전 투수가 된 홍상삼을 의식한 듯 “불펜 투수는 누구나 블론세이브를 할 수 있다. 가을야구의 경험을 쌓기 위한 테스트로 보면 된다.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말로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두산 이야기만 한 건 아니다. 한화를 두고는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이다. 시즌 초반에 안 좋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삼성의 부진을 두고는 “일단 선발투수가 아쉬웠다. 부상 선수도 많아서 승수 쌓기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오, 재원이 안타

롯데와 kt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났다. 사직구장 이야기에 리퍼트 대사가 입을 열었다. “흥미로운 구장이다. 봉지 응원도 새롭고,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구장에서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웃음) 사직구장만의 개성이 있다. 자 이언즈 야구박물관도 꼭 가보시라고 추천한다.” 리퍼트 대사의 야구 사랑은 직관에서 온다. 그가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는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다. “오, 재원이 안타~!” 두산 내야수 오재원의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여느 팬들처럼 하루의 피곤을 날려 보낸다. 그리고 <알럽베>를 시청하며 그날 벌어진 타 구장의 소식을 찬찬히 살핀다. 그는 KBO리그의 구단과 선수들 사정에 해박하다. 애정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알럽베> 재방문을 기대한다.



“<아이러브 베이스볼> 애청자로서 상당히 흥미롭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야구도 <아이러브 베이스볼>로 꼭 시청할게요!”

KBSN SPORTS

레전드 해설위원의 투타 대결

송진우, 장성호 해설위원이 그라운드에 섰다. 200승 투수, 2000안타 타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졌다.



flashback 강통 맞히기 릴레이 미션

두 해설위원이 다짜고짜 투타 대결에 나선 건 아니었다. KBS N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한 이색 제구력 테스트 '강통 맞히기 릴레이 미션'이 그 시작이었다. 송진우 위원과 장성호 위원에 이어 세 번째 도전자로 불려나온 <불야성>의 MC 남희석의 입이 화근이었다. 20번 만에 가까스로 강통을 맞히더니 엉뚱한 주문을 했다. “저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진우 형님과 장성호 위원의 멋진 투타 대결을 보고 싶네요. 경기장에서 꼭!” 이 주문을 두 해설위원이 받았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렀다. 8월 26일 금요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맞붙기로 날을 잡았다.

warming up 아이고 선배님, 살살 좀 해요

결전의 날이 밝았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호의로 스파이크와 양

말을 빌려 신은 송진우 위원이 더그아웃에 놓인 손톱깎이로 손톱을 다듬기 시작한다. 현역 팬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는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손이 붓는 걸 막으려고 사우나에 가면 왼손만큼은 늘 뜨거운 물 밖에 내놓았다. 공을 던질 때 미세한 불편이 느껴질까 봐 왼손의 손톱은 사포로 세심하게 갈았다. 국내 최다 통산 210승, 최다 탈삼진 2048개, 103세이브의 대기록은 그런 관리에서 나왔다.

송진우 위원이 캐치볼에 이어 연습 투구에 들어간다. 돐 구장이라 유난히 소리가 울린다. 글러브에 공이 빨려들 듯 팍팍 꽂히는 소리에 시선이 몰린다. 지켜보고 섰던 장성호 위원이 들으라며 한 소리 한다. “아이고 선배님, 살살 좀 해요.” 장 위원도 이에 질세라 배팅 연습에 들어간다.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은 친다”는 소리를 들던 당대 최고의 타자가 슬슬 시동을 건다.

‘송골매’ 송진우 위원



“10분 정도 몸을 풀었는데, 어깨 상태는 안 좋고, 뒤쪽 근육과 하체 근육은 마비가 올 정도다. 장성호 위원은 은퇴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6년이 넘었다. 원래 던지는 쪽이 어렵다. KBO리그도 타고투저(打高投低) 아닌가. 내가 불릴 것 같다. 그래도 멋진 승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스나이퍼’ 장성호 위원



“손에서 배트를 놓은 지 1년이 다 됐다. 오랜만에 타석에 섰더니 긴장이 되기보다는 날아오는 볼이 좀 무섭다. 송 선배 몸 푸는 걸 봤는데, 볼 스피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타석에 들어서야 할 것 같다.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노리고 가겠다.”

play ball 두 레전드의 승부욕에 불을 지핀 빅 매치

대결이 시작됐다. 이게 뭐라고, 눈빛이 승부욕으로 활활 타오른다. 3판 2선승제*로 규칙을 정했다. 장성호 위원이 타석에 들어선다.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높은 공은 여지없다. 특유의 레그킥으로 타이밍을 잡아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힌다. 잘 맞은 공은 안타깝게도 내야에 떨어진다. 규칙에 따라 파울로 처리. 이후 송진우 위원은 공을 낮게 던지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장성호 위원이 몸 쪽 스트라이크 존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변화구 두 개를 떨거나 지켜보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다. 심기일전해서 이번에는 노리고 들어간다. 당겨 치다 배트를 잡은 손이 울렸는지 악 하는 비명을 지른다. 1, 2루 사이로 데굴데굴 구르는 공을 보며 멍하게 웃는다. 반면에 송진우 위원은 제구력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은 자꾸만 바깥으로 흐른다. 힘이 부치는지 무릎을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결국 포볼을 내주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1스트라이크에서 장성호 위원이 바깥쪽 공을 결대로 밀어 친다. 유격수와 3루 사이를 가르는 땅볼을 두고 “아, 이건 안타야”라고 우겨보지만, 규칙에 따라 파울로 처리. 송진우 위원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볼을 3개나 내준다. 하지만 마지막 공으로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끝내 경기를 마무리 짓는다. 2대 1로 송 위원이 승리하면서 역사적인 맞대결은 끝이 났다.

epilogue 악플은 너무 달지 마시고

투타 대결이 끝난 후 더그아웃에서 담소를 나눴다. 장성호 위원이 말했다. “120킬로 정도 던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타석에 서보니 130에서 135는 나온 것 같다. 선배님이 사회인 야구 하면 지금도 에이스하실 수 있다. 공이 낮게 와서 치기가 힘들었다.” 그러자 송진우 위원이 말을 받았다. “2000안타 타자와 승부한다는 짜릿함이 있었다. 승부욕을 나뉘 펼쳤는데, 제구가 좀 안 됐다. 다만 보시는 팬들이 재미로 봐주셨으면 한다. 악플은 너무 달지 마시고.(웃음)” 송 위원은 오랜만에 마운드에 오른 일이 내심 즐거워 보였고, 장 위원은 새 구장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꿈을 뒤늦게 이뤘다며 기뻐했다. 이번 맞대결의 생생한 영상은 KBS N 공식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다.



영상 바로가기



* 3판 2선승제

역대급 맞대결을 앞두고 규칙을 정했다. 3판 2선승제로 할 것. 투수는 삼진을 시키면 승리. 타자는 안타를 치면 승리. 단, 여기서 안타는 내야를 벗어난 타구일 것. 땅볼은 파울로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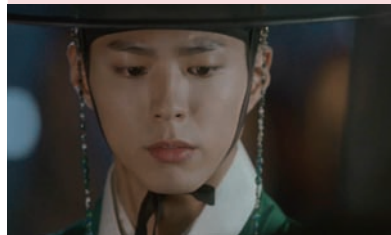
엔딩으로 만나는 보검매직

끝이 좋아서 더 좋았다. 장안의 화제 <구르미 그린 달빛> 얘기다.
여심을 들었다 놓은 '심쿵 엔딩 명대사'를 추리고 추려 BEST 3로 묶었다.

보검매직이 장안의 화제다. KBS2의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왕세자 이영 역을 맡은 박보검 이야기다. 그는 눈물의 애절함, 능청과 다정함을 넘나들며 왕세자의 카리스마를 뽐어내고 있다. 여기에 평소 착하고 반듯한 이미지, 특유의 싱그러운 미소가 더해져 여심 저격에 성공했다. 매회 엔딩마다 대한민국 여자들을 훌쩍 반하게 만든다는 박보검-김유정 커플의 명대사, 명장면을 추리고 또 추렸다.



Best 3.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
[5회]



달빛 아래 한참 달달하던 왕세자 이영(박보검)과 내관 홍라온(김유정). 때마침 라온과 선약이 있던 김윤성(진영)이 나타나 홍라온을 데려가려 하자 이영이 나선다.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

이 순간, 보검매직에 빠져들어 “채널 돌리는 것을 불허한다”로 알아들은 분들 많았다. 세자에게 팔목을 잡힌 라온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Best 2.
“내 곁에 있어라”
[6회]



청나라 사신에게 끌려갈 뻔한 라온을 구한 세자. 구해준 것도 성은이 망극한데, 친히 말안장에 태워 속삭이듯 진심을 털어놓는다.

“너를 보면 화가 나. 헌데 안 되겠다. 보이지 않으니 더 화가 나 미칠 것 같았거든. 그러니 내 곁에 있어라.”

이 순간 홍라온에 감정 이입된 분들 많았다. 그 래요, 저하 곁에 있을게요.



Best 1.
“내가 너를 연모하고 있다”
[7회]



누구한테도 응원 받지 못할, 절대 해선 안 될 사랑인 걸 알면서도 ‘그 못된 사랑’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하는 세자.

“난 세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한 사내다. 내가 너를 연모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답이야.”

라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입을 맞추는 이영. 세자 저하의 직진 로맨스로 안방이 후끈 달아오른 순간을 영예의 1위에 올렸다.



Review



KBSrama
일요일 오후 2시 15분

KBS 청춘사극 계보의 풋풋한 신성

<구르미 그린 달빛>

글 김선영 TV평론가

청춘의 혈기가 약동하는 또 한 편의 사극이 등장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는 <한성별곡>, <성균관 스캔들> 등을 낳은 KBS 청춘사극 계보에 새로이 추가된 눈부신 신성이다.

KBS는 오랫동안 정통 대하사극의 강자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퓨전사극의 선전이 더 돋보인다. 특히 2007년 <한성별곡>부터 <쾌도 홍길동>, <성균관 스캔들>, <공주의 남자>로 이어지는 라인업은 주제 면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이며 KBS 청춘사극만의 뚜렷한 계보를 써왔다. 이 작품들은 억압적인 기성질서 아래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안에 로맨스와 정치극을 절묘하게 버무렸다는 평을 받았다.

<구르미 그린 달빛>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유한다. 꽃미남 왕세자와 남장 내시의 로맨스라는 외피는 한없이 경쾌해 보이나 그 안에는 제법 묵직한 청춘의 고민과 정치 갈등이 담겨져 있다. 외척세력의 견제를 피하려 망나니 세자를 가장한 이영(박보검)과 생존을 위해 남장 뒤에 숨어야 했던 라온(김유정)의 운명은 꼭 닮았다. 기성권력의 다툼 사이에서 벗과 갈등해야 하는 윤성(진영)과 병연(곽동연)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어두운 시대의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며, 그래서 더 아름다운 청춘의 생기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배우들과 연출이 빚어낸 청춘의 초상

<구르미 그린 달빛>의 인기 비결은 비단 KBS 청춘사극의 계보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더 나아가 흥행사극들의 성공 공식을 영리하게 조합한 것이 주효했다. 남장 여자 코드는 이미 검증된 흥행 전략이고, 이영의 완벽한 캐릭터는 MBC <해를 품은 달>처럼 조선판 꽃미남 재벌 2세라는 트렌디한 왕자 캐릭터의 묘사를 받

전시킨 것이다. 정치 플롯으로 보면, 군신 대립에 더해 SBS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변혁을 꿈꾸는 비밀집단 설정이 더해져 갈등이 풍부해졌다. 내시부 소재 역시 SBS <왕과 나>, MBC <대장금> 등의 궁궐 내 이색 직업군 묘사를 이어받아 다채로움을 더한다. 연기와 연출도 더없이 조화롭다. 무릇 청춘물은 그 어떤 장르보다 배우의 매력에 중요하다. 유년과 성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박보검, 김유정의 섬세한 표정과 수려한 얼굴은 그 자체로 청춘의 눈부신 초상이다. KBS <사춘기 메들리>(4부작 드라마 스페셜, 2013)에서 자연의 순수함과 소년소녀의 풋풋함을 부드럽게 조율한 김성윤 감독은 이번에도 연못, 풍등, 화원 같은 아름다운 풍경 안에 배우들을 그린 듯 잡아낸다. 4회 라온의 독무신은 그 절정이다. 이영을 위해 여인의 옷을 입은 라온의 애절함과 그녀를 보며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는 영의 교감, 그들의 심리를 담은 두 배우의 깊은 눈빛이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연출과 어우러진다. 청춘로맨스로서 <구르미 그린 달빛>의 성격을 압축한 명장면이다.

KBS N **웃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함께 나눠요

KBS N은 웃음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웃음이 희망입니다' 사회공헌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행복한 웃음이 담긴 여러분의 사연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사회공헌 캠페인의 시작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



KBS N의 올해 방송 지표는 '웃음이 희망입니다'입니다. 웃음과 희망. 어쩌면 혼한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하다고 해서 그 뜻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말보다는 "내 안에 웃을 여유가 없다"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동안 웃음의 소중함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KBS N은 지난 9월부터 인천대교와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열세 살 소녀, 유에스더 양의 사연을 캠페인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면 차라리 웃어버린다"는 에스더 양. 힘든 가정환경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푸른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웃음의 치유력은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웃음이 없는 하루는 버린 하루다." 코미디의 황제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그는 웃음을 두고 "강장제이고 안정제이고 진통제"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은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웃음이 희망입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우리 주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이메일(smile@kbsn.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중 고혜미 님이 보내온 사진과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울러 KBS Drama <엄마는 고슴도치>의 출연진들이 사진과 함께 보내온 희망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이벤트 사연



저는 8살 딸 쌍둥이를 둔 엄마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여름휴가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 열흘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이와 엄마를 위한 시간이지요.

사진은 작년 여름에 찍었던 우리의 스냅사진이에요. 웃으며 즐겁게 촬영해서 더 추억이 많이 남는 사진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웃음으로 행복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고혜미** 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사진입니다.



KBS N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웃음이 희망입니다' 시청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우리 주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10월 31일(월)까지

응모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smile@kbsn.co.kr)



호텔숙박권(1명)



외식상품권(2명)



비타500 기프트콘

- ※ 간략한 사진 소개와 이름, 주소,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선정된 사진은 KBS N 홈페이지와 KBS N 매거진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www.kbsn.co.kr/smile/)

희망 메시지 from <엄마는 고슴도치>



다른 엄마, 현영

웃음 캔 두잇! 즐거운 웃음엔 희망이 따릅니다. 오늘도 한 번 웃으세요~



지우 엄마, 장영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지우~



은재 아빠, 변기수

안 웃으면 은재 복이 오냐~
웃으면 복이 오지요



하람 엄마, 이현경

모두 함께 웃어라 압!
하루 한 번 웃어보세요!
웃음은 행복의 소통입니다~





빛고을 광주에서 웃음과 희망을 나누다

아시아 최대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가 열렸다. KBS N은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하여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6 광주 에이스 페어

지난 9월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마켓 종합전시회인 '2016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시 행사로, 37개국 430개사에서 690개의 부스를 열고 외국의 바이어와 관람객을 맞았다. KBS N은 MBC+, SBS Medianet 등과 더불어 주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참여, 전시장 입구 쪽에 부스를 마련했다.

올해 전시부스의 디자인은 KBS N의 6개 채널(KBS Drama, KBS Joy, KBS N Sports, KBS W, KBS Kids, KBS N Life) 홍보와 더불어, 올해 방송지표인 '웃음이 희망입니다' 슬로건을 중심에 내걸었다. 6개 채널을 형상화한 기둥을 따라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채널별 프로그램 영상이 상영되었고, 부스 중앙의 멀티비전에서는 각 채널의 영상을 비롯해 KBS N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 영상이 나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후토스 입간판 앞에 몰렸다면,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는 스마일 물병의 인기가 좋았다.

개막일 공연을 위해 에스더 양이 부모님과 함께 광주를 찾았다. KBS N 이준용 대표이사가 에스더의 손을 잡고 귀빈에게 소개하는 중이다.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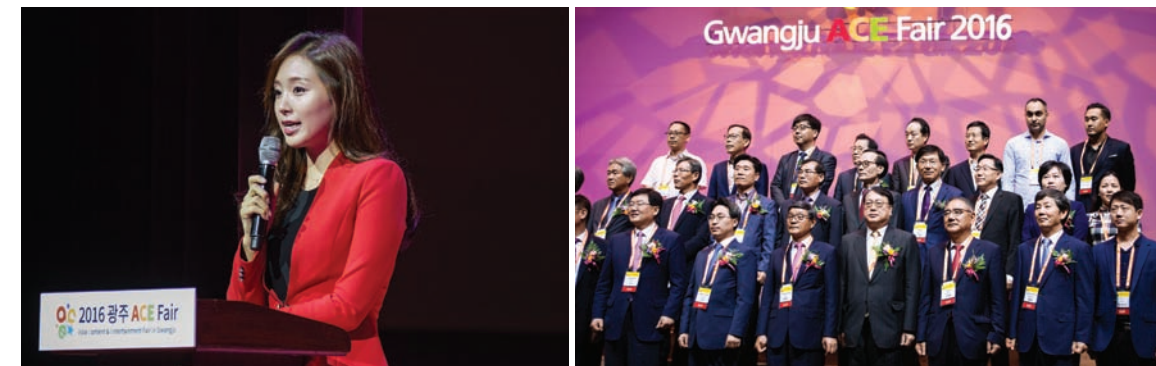
이번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KBS N이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에 개막일에는 KBS1 <인간극장> '소녀와 바이올린' 편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고, '웃음이 희망입니다' 캠페인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섰던 유 에스더 양이 현장을 찾아 공연을 펼쳤다.

첫 곡인 <메토벤 바이러스>의 연주가 시작되자 강렬한 바이올린 소리에 사람들이 KBS N 부스로 모여들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바이올린을 독학한 소녀의 연주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은 몽클한 감동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가 하면, 에스더 양의 공연을 카메라에 담고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등 큰 호응을 보냈다.

KBS N은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을 위한 선물도 마련했다. 페이스북 친구 맺기 이벤트를 통해 '웃음이 희망입니다' 문구가 인쇄된 스마일 물병을 나누며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막식에서 만난 김보경 아나운서

김보경 아나운서가 다목적홀에서 열린 개막식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KBS N 이준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경진 국회의원,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 동네 시장 빵집을 응원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후원

전통시장 빵집 공동 브랜드인 <디어스 베이커리> 1호점 오픈 행사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시장통의 작은 빵집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엮어 변화를 이끈다는 목표다.



KBS N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9월 9일(금), 서울 중구 약수시장에서 전통시장 빵집 공동 브랜드 ‘디어스 베이커리’ 1호점 개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KBS N 이준용 대표이사, 송전현 부사장을 비롯하여 최창식 서울중구청장, 기업은행 나눔행복부 김윤기 부장, 도네이션코리아 김태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디어스 베이커리’의 시작을 축하했다. ‘디어스 베이커리’는 전통시장 내 소형 빵집들을 공동 브랜드화하여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그 첫 결과물로 약수시장의 제과점 ‘빵박사’가 ‘디어스 베이커리’ 1호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 상호인 디어스 베이커리(de'us Bakery)는 ‘우리로부터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디어스 베이커리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맞서 시장통 빵집

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가맹비 등은 일절 받지 않는다. 이준용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작은 시작이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소상공인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찾아주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KBS N의 이호근, 이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인근 구립복지관과 소방서 등에 빵을 기부하는 나눔 활동이 이어졌다. 이준용 대표이사와 아나운서를 비롯한 임직원들도 이 활동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향후 나눔과 상생의 뜻을 함께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심 저격, 심쿵 드라마가 뜬다

KBS Drama 채널, 케이블 전체 시청률 1위 올라

<태양의 후예>가 지핀 불에 <구르미 그린 달빛>이 기름을 부었다.

지난 8월 31일(수) KBS Drama 채널이 tvN을 비롯한 채널들을 제치고 케이블 전체 시청률 1위에 올랐다.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KBS에서 선보이는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큰 사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 인기가 고스란히 케이블 드라마 전문 채널인 KBS Drama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날 KBS Drama 채널에서는 <구르미 그린 달빛>을 비롯하여 아침 드라마 <내 마음의 꽃비>, 저녁 드라마 <여자의 비밀>이 모두 1%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 전체 시청률 1위를 견인했다. 특히 <구르미 그린 달빛>은 안방에 ‘박보검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인기리에 종영된 <아이가 다섯>의 후속으로 선보인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가파른 시청률 상승을 기록하며 여성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잘 만든 콘텐츠의 힘

KBS N 콘텐츠 프로모션 설명회 열려

KBS N과 패밀리티비가 콘텐츠 공급 업무협약을 맺었다.

KBS N 콘텐츠 프로모션 설명회가 지난 9월 21일(수) 전남 무안에서 열렸다. 본 설명회는 다수의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KBS N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홍보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약 16명의 PP사 임원들과 KBS N 한희원 정책기획본부장, 서경원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경 아나운서의 진행과 PT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KBS N은 PP사인 패밀리티비와 콘텐츠 공급 업무협약을 맺어 콘텐츠 유통의 기반을 닦았다. 한희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PP사와의 콘텐츠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otice

하태 핫해 KBS N 매거진

지난 호 '히트다 치킨!' 독자 소감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분들 중, 두 분의 사연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당연히 치킨 상품권도 쏩니다.



매호 <KBS N 매거진>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세로로 길쭉한 판형의
독특한 디자인도 맘에 들고, TV 화면으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천
천히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와 SNS로 솔직담백한 수다를 떨 기분. 책장
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끝의 감촉으로 설레는 묘미가 있네요^^
- 조향원(경기도 의정부)



매달 만나는 콘텐츠 백과사전 KBS N magazine! 뽀빠 야
덕인 저에게 KBS N magazine으로 접하는 야구 정보가
정말 꿀잼이네요.
9월호 '생생한 리우의 현장을 담다' 기사는 리우올림픽 중계를 현
장에서 보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알차습니다. 7월호 김보경, 조은지
아나운서와 함께한 '그녀들의 특별한 휴가' 기사도 너무 좋았어
요. 제가 김포 사는데 두 아나운서 분들 덕분에 김포가 세부가 된
기분^^
- 권태일(경기도 김포)

히트다 치킨! 이벤트 선정자 발표

곽우경, 권태일, 조향원, 차슬기, 홍예빈

선정된 5분께 옛날 맛 그대로 '또봉이 통닭' 상품권(1인당 2매)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N pick

생방 중에 일어난 일

오효주 아나운서의 입에서 웃음이 뺨 터졌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두산의 홍상삼(26) 투수를 인터뷰하는 송진우
해설위원을 두고 작가가 던진 말 때문이다. "손 모양이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웃음이 넘치는 알뜰베
스튜디오다.



<웰컴투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진행하던 오효주 아나운서가
작가의 농담에 입을 가리고 흐고 있다.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농장에서 온 프레스드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오렌지 750ml PET 기준
플로리다 농부가 키우고, 델몬트가 엄정한 생오렌지 10.3개를 통째로-
프레스드 착즙으로 갓 짜낸 듯 신선하게!

파머스 주스바
Farmer's
Juice Bar



파머스 주스바의 신선함은 저온충전 어셉틱 PACK/PET로부터-
저온충전이란 고온에서 순간살균한 주스를 무균밀폐 공간에서 저온상태로 어셉틱 PACK/PET에
충전하여 주스의 맛과 영양소를 최대로 살리는 생산방식입니다



롯데칠성음료

◆ 제품함량 ◆ 1L: 오렌지착즙 100%, 자몽착즙 100% ◆ 750ml & 240ml: 오렌지착즙 95%, 필드셀 5% / 자몽착즙 95%, 필드셀 5%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